

5과. 흠어지는 교회: 담장밖으로

하나님 마음 알기

- 흠어지는 교회의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란 어느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합니다. 흠어지는 교회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신앙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가능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도록 권면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세상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신앙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은 우리가 뛰어들어야 하는 구체적인 선교 현장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 흠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세상 속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이야말로 교회가 뛰어들어야 할 사역의 자리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 깎두기 교회

담장을 넘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한 마디로 '깎두기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깎두기'는 어린시절의 놀이문화에서 '놀이나 모임에 제대로 속하지 않은 채 덩 치급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깎두기는 어떤 상황에든지 승패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누구 한 사람 놀이에서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목 놀이 문화를 훈훈하게 만든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깎두기 같은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승패에 관여하지 않되 풍성함과 훈훈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깎두기 말입니다. 깎두기는 이편저편에 다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고, 깎두기로서의 존재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깎두기 같은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생존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는 데에서 깎두기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생존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지만, 사명에 집중할 때 교회는 오히려 매력과 진정성이 살아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회가 담장을 넘어 세상 속 교회가 되려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잘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담장 안에 숨은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과 접촉점을 갖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 찾기

1.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구조와 새로운 구조를 비교하여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을 설명해봅시다.
2. 선교적 교회, 담장을 넘는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깎두기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깎두기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담장 뛰어넘기

1.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집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2.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선교적 교회로 깎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용점을 생각해봅시다 - 가정, 교회, 직장에서.

기도제목